

유쾌한 다이달로스의 경지: 휴 케너(1923-2003)를 돌아봄

김길중

블룸의 날(Bloomsday) 100주년 기념 더블린 제임스 조이스 심포지엄은 전 세계의 거의 30개국에 가까운 나라에서, 몇 백 명인지 헤아리기 어렵게 많은 학자, 전문가 들이 발표하고, 갖가지 거국적인 기념행사가 곁들여 있다. 아주 모처럼 이런 곳에 참여하게 되어 “Academic Programme”을 드러다 보니, 논문 발표도 아니고, 원탁 패널 토의도 아닌, 세션 하나가 나의 시선을 붙든다. 6월 17일 오후로 일정이 잡혀져 있는 세션 제목이 “Hugh Kenner(1923-2003): A Celebrati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뉴멕시코 대학 Reed Dasenbrock 교수가 주제하고, 명성이 높은 이름으로는 Michael Groden 교수와 금년 11월 서울 조이스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Morris Beja 교수 등이 끼어 있다.

사실은 주목했다기보다 놀랐다 해야 맞을지 모른다. 나는 그분에 대해 사사로운 친분을 가진 것으로 상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한 25년 전 쯤일까, 그분에게서 여름학기 강좌를 들은 적 있고, 한국영어영문학회가 십 수 년 전에 그분을 초청하였을 때도 발표 사회도 보고 이야기도 따로 나누는 한 행운이 있었다. 직접

대면하거나 그의 책을 읽을 때나 나의 한결같은 소회는 세상에 이런 재능의 경지가 있구나, 하는 감탄이었다.

방금 놀랐다 했는데, 놀란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근본은 놀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내 속에 케너 교수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때때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뜬금없이. 작년에 타계한 분에 대한 추모 겸한 업적기념 일정이 해를 바꿔 블룸의 날 행사를 기화로 잡혀져 있고,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서 노상 한발 늦은 게 버릇인 내게 때늦은 별세 소식으로 찾아왔을 뿐인데, 한 때 조금 배웠던 그 분이 추후 다시 만났을 때 매우 자별하게 대해 주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 이상은 연락이 한 번쯤 오고 갔을까, 그냥 그뿐인데, 엉뚱하게도 무엇이 미안할까.

가만히 짚어보니, 필경 그의 임종 무렵에 손질하고 있었을 나의 글 「조이스의 역사적 상상력」이 그분의 저서 *Ulysses*(1980)에 나오는 어느 부분을 다소 부정적 비판으로 비칠 수 있는 방향으로 논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비판이 내 원래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결과적으로 내심 몹시 존경하는 분에게 정당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은 이의제기를 한 것은 아닌가. 말의 뜻이 의도한 지경에 벗어나서 그쪽으로 월경하지 안해야 할 텐데, 그런 우려를 혼자 품고 있었던 것 같다. 존경심만큼 소심해 진 것 같다. 어쨌든, 나는 망자에게 쓸데없이 좀 미안했다. 블룸이 받은 Martha의 편지에 나타나는 말 “I don't like that word.”처럼, 나의 말로 잠시 내 속이 편하지 않았다. 엘(L) 자 하나 들고 나고 하는 사이 세계(world)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word). 나의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조이스 독법에 ‘언어’와 ‘역사’가 있는데, ‘역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체로 ‘언어’ 과잉이었는데, 탁월무비의 휴 케너도 ‘언어’과잉으로 읽히는 순간이 있다, 조이스에게서 파넬 테마는 이런 배경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써나가는 과정이었다. 나의 글을 다시 인용하면 이러하다.

... 많은 독자들과 연구가들의 눈에 비친 조이스의 특징적 면모는 화려한 언어의 장(場)을 역사의 방책(pale) 밖에 구축한 탁월하되 비사회적인 장인(匠人)의 이미지이다. 조이스의 언어집착이 유별났던 만큼 이와 같은 이미지는 물론 상당부분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조이스의 독법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우리 당대의 최고의 조이스 비평가 가운데 하나인 휴 케너(Hugh Kenner)를 인용하여 그 명암을 가늠하여 보기로 하자.

『울리시스』의 맨 첫 장면에서 멀리건(Buck Mulligan)은 아침 바람에 잠옷 자락을 사제의 법복인양 휘날리며 마텔로(Martello) 탑 위로 오르면서 거울과 면도기를 십자모양으로 종지 위에 엮놓아 받쳐 들고, “내 하느님의 지성소에 오르노라(Introibo altare dei)” 하고 구성지게 독송한다. 그런데 케너에 따르면 멀리건의 이 언사의 자격은 텍스트에 표현된 바대로 단일한 인용부호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첫째, 멀리건은 자신의 생각을 펴는 것이 아니라 악령미사(Black Mass)의 집전사제(celebrant)를 흉내내는 것이고, 둘째, 게다가 이 사제는 아일랜드 신부의 몸짓을 모방하는 것이고, 셋째, 게다가 그 사제가 독송하는 구절의 출전은 미사전례집(Ordo)이고, 넷째, 게다가 그 미사전례집은 성(聖)체류의 라틴어 번역을 차용한 것이고, 다섯째, 게다가 이 라틴어 구절은 어느 이름모를 유대 송찬(頌讚) 시인이 유랑 중에 썼다고 알려진 “Va-a-vo-ah el mizbah elohim”의 번역인 것이다. 그렇다면 멀리건이 독송하는 이 미사 제례어구(이 구절의 출전은 “지성소에 임하는 기도문, Prayers at the Foot of the Altar”으로서 전에는 미사전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갔었는데, 제 2차 바티칸 공회 이후 폐기되었다 함)는 단일 인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섯 겹의 중첩 인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을 부호로 나타낸다면, 따옴표 속에 따옴표, 다시 그 속에 따옴표, 다시 그 속에 또 그 속에 또 그 속에 따옴표, 하는 식으로 표시된다는 것이다(Kenner, 34-5).

엄정하게 말하면 히브리말로 된 이른바 원전으로부터 멀리건의 독송에 이르기까지의 인용이나 차용의 계기가 예컨대 다섯이나 열이 아니라 굳이 여섯이라는 주장은 사실은 자의적인 판단이다. 또 히브리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후의 중첩과 변용에 상응하는 장구한 기간 동안의 우여곡절의 산물일 수 있다. 또, 원론적으로, 인용, 변용, 중첩은 근래의 포스트 계열 비평과 이론이 애호하는 메타포인 서양 중세의 기록판(palimpsest)처럼 언어 전반의 모든 체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한 문화 코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요, 특정 작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울리시스』의 서두 어구에 관한 케너의 진단은 조이스 텍스트에 특별히 적합한 빛나는 통찰이면서도 아울러 모든 텍스트의 일반 원리에 관한 시의 적절한 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오욕칠정을 가지고 분별하고 재량하고 선택하는 작가의 인간적 주제가 얼마나 쉽게 망각하기 쉬운가도 암시하는 힘이 있다. 재기 발랄한 조이스의 다의적 텍스트는 이에 필적하는 재치와 통찰을 동원하는 케너식 어법으로 열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닫히기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케너가 『울리시스』를 해명하기 위하여 명명한 텍스트의 “기술공학적 장(technological field)”이란 개념은 정곡을 찌르는 바 있지만, 이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면 에이츠 이후의 아일랜드의 큰 시인중의 하나인 패트릭 캐버니(Patrick Kavanagh)가 「누가 제임스 조이스를 죽였는가」(Who Killed James Joyce?)라는 풍자시에서 신랄히 질타한 바대로, 오로지 “학업 혹은 생업

을 위하여” “조이스를 죽이는 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이상옥편
『현대 영미소설의 이해』 2004, 169-171)

말이란, 위에 재인용한 나의 말을 포함하여, 잘 통하면서도 안 통하고 잘 안 통하면서도 또 통하는 그런 애매모호 한 데가 있다. 그러니, 케너 교수가 유명을 달리하였기에 공연히 새로워진 나의 미안함은 그냥 미안할 따름이지, 그렇다 해서 위의 말을 들어 수정하거나 거두어들일 일은 물론 아니다. 상상된 빛이 있는데 갇을 수는 없게 됐다는 의식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다만, 조이스에게서 ‘언어’와 ‘역사’의 차원을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언어’를 배제하고서는 ‘역사’가 실현될 수 없을 텐데, 말이 좀 용감하게 나갔을 수 있다. 모든 의념(意念)의 깊은 자리는 오히려 ‘역사’가 사상된 현재일 수 있는데. 예 하나. 미국의 흑인 작가 리처드 라이트에게서 사람들은 제임스 조이스나 스티븐 데달러스를 연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Black Boy*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스티븐의 거울에 비추어 읽어보자.

That night in my rented room, while letting the hot water on over my can of pork and beans in the sink, I opened *A Book Prefaces* and began to read....I pictured the man as a raging demon, slashing with his pen, consumed with hate, denouncing everything American, extolling everything European and German, laughing at the weaknesses of people, mocking God, authority. What was this? I stood up, trying to realize what reality lay behind the meaning of the words. Yes, this man was fighting, fighting with words. He was using words as a weapon, using them as one would use a club. (*Black Boy*, 제 13장)

이것은 확연한 (그러나 물론 국면을 달리한) 언어탐닉이고 그 비장감에는 어딘가 스티븐 다운 구석이 있다. 조이스의 언어도 때때로 이렇게 심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쾌하고, 또 애매하고, 모호하고, 엉뚱하고, 어정쩡하고, 해매고, 굵고, 폭발하고, 부서지고, 날아가고, 그러나 언제나 수습되고, 그러고서 다시 아프고, 즐겁고, 빠저리고, 아득하고, 물론 빛나고, 또 허망한 그런 언어. 그렇게 천변만화하는 조이스 언어를 케너 교수는 그에 능히 필적할 드문 달인의 솜씨로 종횡무진 섭렵한다. 때로는 꽤도난마 통쾌하게. 때로는 심원 유현한 경지에서.

케너 교수의 깊은 학문, 날카로운 직관, 유쾌한 지성, 기민한 언어감각을 기린다. 그는 이른바 “영클 찰스의 원리”의 발견자이다. 그런데 이 원리를 스스로 소문

없이 실천하여, 대상을 논위(論謂)함에 있어 대상의 정수에 육박하여 그 안에서 어법을 취해오는 말하자면 스타일의 신선술(神仙術)을 구사하고 있다. 조이스의 창작 정신을 내화하여 조이스 비평 언어의 독특한 경지를 창도한 셈이다. '학구적 예인의 경쾌한 경지(happy academic acrobatics)'라 한다면 말이 될까. 우리의 시대는 매우 무거운 시대이므로 이를 가볍다 탓해서는 안 된다. 케너 교수는 추락을 모르는 다이달로스처럼 경쾌하게 비상하면서 이른바 '파운드 시대', 모더니즘 문학의 중심에 조이스의 거상을 발견하고, 유쾌하고 유능하고 집요한 그의 옹호자가 되었다. 뒤늦게 찾아온 서거 소식에 잠시 가졌던 공연한 미안감을 접고 다시 보기 어려운 이 이상적 조이스 독자가 이런 경쾌한 박식의 경지를 되돌아본다.

(서울대)